

사회

올 초부터 물 새고 균열 '이상징후'

금남지하상가 붕괴 '예견된 사고' ... 상인들 신고해도 땀질처방

대림산업, 터파기 공사 '토목 계측기'도 설치 안해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는 올 초부터 나타난 누수현상과 일부 점포 벽면 균열 등 이상징후에 대해 시공사와 관리감독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탓에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9면〉

◇ 잇따른 '이상징후' = 20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금남지하상가 내 한 점포 벽면에 금이 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누수가 계속됐으며 사고 전날까지 수 차례에 걸쳐 대림산업에 의해 보수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무너진 3곳의 점포 상인들은 벽면 균열과 누수가 계속되자 대림산업과 동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업체와 자치단체는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금이 간 부분을 막고, 수량을 분산시키는 등 '임시처방'을 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대림산업이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를 시작한 뒤 올 초 지하상가 2공구 '황실 십자수' 벽면에 균열이 생겼으며, 같은 달 광주경찰청이 사고현장 주변에서 신호체계 변경을 위한 도로절단 작업을 벌이면서 같은 점포에 균열이 재차 발생하고 누수현상까지 빚어졌다. 이후 지하주차장 출입구 누수가 계속되면서 동구청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조

사했으나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으며, 결국 방수업체를 통해 수량을 분산시키는 공사를 마쳤다. 사고 당일에도 이번엔 무너진 점포 3곳으로 물이 쏟아져 상인들이 물을 퍼냈으며, 붕괴 직전 대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안전전문가 정모(51)씨는 "누수현상이나 균열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면 당연히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했다"며 "몇 달 동안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했다면 근본적인 이유

가 있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 대림산업 대처 '도마에 = 대림산업은 지난해 말부터 지하주차장 공사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금남지하상가 쪽으로는 공사중 사고발생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구조물의 경사도와 응력을 측정하는 토목 계측기(計測器)를 설치하지 않았다. 금남지하상가 쪽에 지하연속벽(Sturdy Wall)이 설치돼 있어 붕괴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설치대상에 제외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측기를 통해 주변 지형의 변화를 수시로 점검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

다. 대림산업과 추진단은 이날 "금남지하상가 쪽의 지하연속벽에 아무런 이상 없이 지반이 침하하고 냉각탑이 기울었다는 점에서 지하주차장 조성공사와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대림산업은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응급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가 주변의 지하주차장 시공사라는 도의적인 책임에서 보수공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주차장 '물바다' 지난 19일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에 따라 발생한 토사로 지하주차장 입구가 막히면서 안에 있던 55대의 차량이 갇혀 있다. 관리사무소측이 20일 주차장에 출차를 알 수 없는 물이 흘러들자 양수기를 동원해 물을 빼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금남지하상가 피해 복구 최소 3개월

추가붕괴 우려 시내버스 노선 변경 ... 책임소재 법정공방 가능성

'금남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추가붕괴 가능성이 높아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20일 광주시·동구청 등 9개 기관 및 3개 업체 35명으로

대책회의를 갖고 전문가와 상인이 참여하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찾아내 현장 주변의 안전이 확보돼야만 복구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사고조사위 구성부터 복구에 이르기까지 최대한 일정을 앞당기겠으나 여러 가지 절차를 감안하면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토사가 입구를 막으면서 금남지하주차장 내에 고립돼 있는 차량 55대도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어 차량을 사용할 수 없는 운전자들의 막심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추가붕괴 등 2차 사고 우려로 사고현장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이 변경됐으며 금남지하상가 1·2공구에 대한 상수도·도시가스도 중단됐다. 광주시는 사고조사위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고 현장 주변인 옛 전남도청을 경유했던 시내버스 7·9·45·51·1000번 등 23개 노선을 동구청 경유로 변경하기로 했다. 광주시도시공사는 20일 오전부터 폭발사고나 침수 등을 우려해 금남지하상가에 대한 상수도·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금남지하상가의 안전성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이후 사고원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사고원인에 따라 피해보상 책임소재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법정공방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선거 현수막 '시비'

"상가 간판 가린다" "나무 죽인다" 민원 쇄도

광주 2000여개 내걸려

"상가 간판을 가리면 어떻게 해요" "현수막 나무를 죽이고 있어요" 공식적인 6·2 지방선거 운동이 시작된 20일 광주 시내 곳곳에 1000개가 넘는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20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현수막 관련 불편 전화 20여건이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광주시장 후보가 자신의 학원 앞에 1.5m 높이에 가로 5.5m, 세로 0.7m의 현수막을 설치해 학원 입구와 간판을 가렸다며 철거를 요구했다.

또 북구 문흥동 모 아파트 앞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민원인도 식당 간판이 광주시장 후보의 현수막에 가려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고, 서구 풍암동의 한 주민은 "현수막 때문에 은행 나무가 죽을 것 같다"며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해당 선거구 안에 읍·면·동마다 1개

의 현수막을 장소에 상관없이 게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에겐 현수막에 있는 후보자 연락처를 안내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 이모(34·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는 "법을 떠나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살아있는 나무에까지 현수막을 묶는 것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들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상식적인 선에서 현수막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역의 선거에 출마한 총 242명 중 비례대표 34명을 제외한 208명의 후보가 내걸 수 있는 현수막 수는 총 2000여개에 이른다.

시장 후보 6명과 교육감 후보 5명 등 광역후보 11명은 광주지역 92개동에 1개씩 모두 1000여개의 현수막을, 기초단체장 후보 18명은 300여개를 내걸 수 있다. 시의원 후보 50명은 250여개를, 교육의원 10명과 기초의원 119명 등은 700여개의 현수막 설치 가능하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허남석 후보 조사 없이 사건 검찰 송치

곡성 위치추적기 부착사건

'곡성군수 후보 위치추적기 부착 사건'을 수사해 온 곡성경찰은 20일 허남석 후보가 직접 개입한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날 "20여일간의 수사 결과 허남석 후보의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지만, 허 후보의 동생을 포함해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하는 등 모두 1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후보의 동생 허모(52)씨는 지난달 23일 곡성군 곡성읍 선거사무실에서 임모(49)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민주당 조형래 후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임씨의 지시로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장모(30), 최모(37)씨 등 4명을 구속했으며, 선거사무실 컴퓨터 기록을 삭제한 안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임씨의 처남(49)을 지명수배했다.

한편, 경찰은 허 후보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난 18일 허 후보가 자해함에 따라 출석 조사 없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동부취재본부=김계종기자 kjkim@

오월가요제 등 5·18 행사 장소 일부 변경

금남지하상가 붕괴로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지반 붕괴사고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치를 예정이었던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 장소가 일부 변경된다.

'5·18 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위원회'(이하 30주년 행사위원회)는 2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30주년 행사

위원회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지반 붕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비해 제1회 전국 오월창작가요제 등 일부 행사의 장소를 변경했다.

21~22일 이틀간 예정됐던 제7회 5·18 청소년 문화제 'Red Festa'는 행사 주무대를 옛 전남도청에서 금남공원으로 옮겨 진행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8026) 김중두



호프집서 성폭행 30대 입건

광주서부경찰은 20일 호프집에서 혼자 근무하던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달아난 장모(36·무직)씨를 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14일 밤 11시45분께 광주시 서구 풍암동 모 호프집에서 홀로 근무중이던 여종업원 최모(26)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후 8시에 선배와 함께 최씨가 일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간 뒤 다시 들어와 범행을 저질렀다. /김희기자 kimho@

후배 갈취 10대 졸업앨범 때문 달미

○교고생이 친구 4명과 함께 중학교 후배의 돈을 빼앗았다가 졸업 앨범 때문에 달미.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모 고교 1년 김모(16)군 등 5명은 지난 3일 오후 광주시 북구 매곡동 모 아파트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광주 모 중학교 2년 박모(14)군의 현금 6000원을 빼앗았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군은 광주 모 중학교 교복을 입은 박군에게 "내가 다니는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차비 좀 달라"며 강요했는데, 경찰은 박군의 얘기를 듣고 이 학교의 졸업 앨범에서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김군 등을 검거.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 ▶ 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문법영어 문법, 어휘(문법지), 논리(독해) 문법, 문법(독해) 학습하는 기법
	문제풀이 확장반	실용영어(독해)에 대한 4차 논리(독해) 문법(독해) 문제풀이 기법
편입수학	미적분학	문법수학(기법) 학습(문법) 기법(독해) 문제풀이 기법

상위권대학편입 / 전남대편입 / 일반편입 / 학사편입 / 사립대편입

편입학부별 특강교수진	편입학부별 특강교수진	편입학부별 특강교수진
대학편입 전문 해박교수진	대학편입 전문 해박교수진	대학편입 전문 해박교수진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u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1 222-8088, 227-8088